

2026 지역사회 청소년교육 활동 수기 공모전 자료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본 프로그램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발전기금 중 청소년교육과로 지정해주신 후원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목차>

01. 우수작 (지역사회 청소년교육 수기_신*숙 학우)	1
02. 우수작 (줍자, 벌자, 먹자, 마라탕! - 경험으로 배우는 성장 이야기 안*주 학우)	7
03. 우수작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함께 만든 성장의 기록 _박*은 학우)	10
04. 우수작 (지역사회 청소년교육 수기_오*연 학우)	14
05. 우수작(예방과 개입의 균형 속에서 만난 아이들_김*미 학우)	16
06. 우수작 (고전이 청소년을 만났을 때_김*정 학우)	19

지역사회 청소년교육 수기

청소년교육과 신*숙 학우

1. 내 아이를 위한 시작, 그리고 보이지 않던 세상과의 만남

50대 중반의 전업주부인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인 아들 형제는 늘 미안함과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감함 속에서, 제 진심과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저 역시 깊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자책감에서 벗어나 무언가 성취해 내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그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막연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혼 전후 변변한 직장 경력도 없었고, 고졸 학력으로 대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청소년교육과’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기서 배워서 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리라” 그렇게 35년 만에 시작한 대학 공부는 컴맹이었던 저에게 큰 버거움인 동시에,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인생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2. 주눅 들었던 전업주부, 학과의 자부심을 짊어지다

이미 대졸 학력을 가졌거나 현직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유능한 학우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던 해, 바쁜 현직 학우들을 대신해 전업주부인 제가 용기를 내어 학과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함과 무지함에서 시작한 대표직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학교와 학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방송대 청교과 출신들은 실무나 컴퓨터 작업에 약하다”라는 편견 섞인 오명을 들었을 때, 기가 죽기보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학과의 명예를 빛내고 편견을 깨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각종 교육 봉사 활동,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 학부모 모니터링, 고립·은둔 청소년 멘토링 교육 등 발로 뛰는 현장에 도전하며 저만의 실무 역량을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키워나갔습니다.

3. ‘청소년교육나눔미’를 통해 펼친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날갯짓

어느덧 4학년이 된 지금, 저의 시선은 저의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개인적 소망을 넘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과 선배님이 다음 카페 ‘청소년교육나눔미’에 올리신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아웃리치 서포터즈] 모집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 활동이야말로 그동안 제가 갈고닦은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할 최고의 기회이자, 위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간절했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과에서 배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오명을 씻어내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임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는 설렘과

확신으로 이번 서포터즈 활동에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두던 분야였기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지만, 화상(Zoom) 면접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덜컥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시청소년쉼터와 아웃리치 관련 자료를 꼼꼼히 찾아보며 면접을 준비하던 중, 허를 찌르는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직원들과 활동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서포터즈 원 대부분이 20대일 줄은 미처 몰랐기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답변을 건넸습니다. “곤대짓 안 하겠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면접 분위기 속에서, 저의 솔직하고 정감 어린 답변에 면접관분들이 미소를 지으며 친근하게 반응해 주셨고 당당히 합격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첫 현장에 발을 디딘 순간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과 서포터즈 팀원을 통틀어 50대는 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활동할 서포터즈 팀원 8명은 생기 가득한 20대였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실무에서 야무지고 단단해 보이는 그들 사이에서, 과연 제가 팀원들과 발을 맞추며 제 몫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감만큼이나 무거운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4. 서툴렀던 발걸음, 현장의 그물망 속으로 조화롭게 스며들다

실제 마주한 아웃리치 현장은 생각보다 엄청난 체력과 섬세한 관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아웃리치 활동은 청소년들의 환경과 특성에 맞춰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전문화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① 예방형 아웃리치: 청소년들이 밀집하는 변화가의 코인노래방들을 발로 뛰며 홍보물을 비치하고, 짧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두 시간이 넘도록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간식 키트를 나누어주는 치열한 체력전이었습니다.

② 고정형 아웃리치: 안양1번가나 범계역 로데오거리, 평촌 학원가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에 직접 부스를 설치하여 거리의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일시청소년쉼터를 홍보하는 활동이었습니다.

③ 캠페인형 연합 아웃리치: 지역 내 청소년 유관 기관 및 학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하여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발굴의 시너지를 내는 연합 활동이었습니다.

④ 심야 아웃리치 [‘달리는 트랙’]: 거리 배회 청소년들이 주로 밤늦은 시간대에 움직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예방형 아웃리치와 고정형 아웃리치를 보완한 활동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공원에 부스를 설치하고, 심야에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햄버거를 지원하며 안전망 역할을 하는 특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⑤ 사이버 아웃리치: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SNS 공간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보호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거점 활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직접 발로 뛰며 경험한 현장은 그야말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구

하기 위한 촘촘한 그물망 같았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헌신적인 활동들을 마주하며, 자식 또래의 팀원들 틈에서 주눅 들었던 저의 걱정은 이내 “나 역시 이 그물망의 단단한 한 코가 되어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량 진입이 어려운 변화가나 공원에 부스를 설치해야 했기에, 천막과 테이블 등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 싣고 땀방울을 흘리며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작은 수레에 짐을 싣고 옮기다 보니 자꾸 쏟아지는 게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고정바를 챙겨가기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행동이 동료들에게 상의 없는 독단이나 부담스러운 오지랖으로 비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현장의 방식을 묵묵히 따르며 조화롭게 스며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5. 다정함이 칼날이 되지 않도록, 언어의 온도를 다시 배우다

진짜 고단함은 육체가 아닌 ‘말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스의 난이도별 게임에 참여할때 부담을 덜어주려 건넨 “힘들면 쉬운 코스로 해요”라는 격려는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계 짓고 자존감을 낮추는 표현이 될 수 있었고, 넘어진 아이에게 무심코 던진 “엄마한테 호~ 해달라고 해요”라는 다정함은 가정 내 돌봄의 부재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뼈아픈 실수가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지원을 나온 사회복지요원에게 ‘신의 아들’ 이라며 가볍게 던진 농담이나, 부스를 외면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요즘 애들은 참 시크해~”라며 뺨은 혼잣말조차도 타인의 아픔을 간과하거나 청소년들의 방어기제를 낙인찍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실무자의 조언을 들었을 때,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일상의 평범하고 관성적인 언어가 청소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헤집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글프게 깨달았습니다. 현장 활동보다 주의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위축되기도 했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사회경험이 없고 저의 배움이 얇아 일어나는 일 같아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혹여나 저의 반복되는 실수가 방송대 청교과 학우들과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지는 않을까 가슴을 앓기도 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이미 수많은 편견과 거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활동가의 언어는 청소년들이 세상에 닫아건 마음의 빗장을 열거나 반대로 더 단단히 걸어 잠그게 만드는 ‘결정적 열쇠’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조건 없는 다정함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삶의 맥락을 읽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의 ‘온도’가 청소년들에게 통제나 동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저는 현장에서 쓰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극도로 섬세하게 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할 때, 제 안의 고정관념을 먼저 비워내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경청하는 ‘낮은 언어’를 연습했습니다.

현장은 저의 삶과 언어 체계를 리모델링하는 치열한 배움터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처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무지와 부족함을 더 깊은 성장의 열망으로 채우며, 방송대 청교과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현장의 조화로운

한 코이자 청소년들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활동가로 거듭나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6. 나를 세우고 채워준 등대, 방송대 청교과와 교수님

하지만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제 안의 부끄러움은 이내 깊은 각성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맞닥뜨린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는 결코 학교의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방송대 청소년 교육복지상담학과 교수님들께서는 늘 열정적인 강의로 해박한 전문 이론 지식을 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식보다 먼저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교육의 열정을 심어주셨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이미 수업 시간에 수없이 강조하시고 세밀하게 가르쳐주셨던 현장의 지혜들을, 그저 제 배움이 알아 순간적으로 놓치고 흘려들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주눅 들어 있던 전업주부에 불과했던 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당당한 자존감을 심어주시고, 제 삶의 진정한 자아정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폭넓고 깊은 역량을 쌓아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교수님들이셨습니다.

등대처럼 올바른 길을 비춰주신 교수님들이 계셨기에, 저는 이 부끄러움을 낙담이 아닌 더 큰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는 청소년교육과 복지와 상담 공부를 더욱 열심히, 그리고 심도 있게 이어갈 것입니다. 저를 이토록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시고 단단하게 키워주신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 존재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 감동

서포터즈 활동이 제게 가혹한 반성문만을 요구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언어와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깊은 감수성을 체득하는 눈부신 배움터였습니다.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달리는 트랙’ 활동을 하던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수줍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저 안양공고 축구부 황○○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짧은 한 마디가 이상하게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 석 자를 잊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캠페인형 연합 아웃리치를 진행한 안양공고 체육대회 현장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름을 외쳤습니다. “오~ 황○○!” 그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기억해 주셨네요?”라고 묻는 듯 동그해진 눈망울, 이내 쑥스러워하면서도 주변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짓던 그 찬란한 미소. 제가 아이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단 하나, “나는 너라는 존재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단다”라는 무언의 위로를 건네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웃리치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유한 존재를 알아봐 주고 인정해

주는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소통이 마음을 열고, 마침내 소중한 변화와 깊은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8. 땀방울 맺힌 걸음, 길바탕이 되다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한 이래,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아웃리치서포터즈 상시 모집 공고가 새로 났을 때, 저는 학과 동기들에게 현장의 고단함과 그보다 더 큰 보람을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준 학우 덕분에, 5월 말부터는 든든한 학과 동료와 함께 이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료를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 고된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을까?” 단순한 호기심도, 소소한 활동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동경하던 기관에서 직접 발로 뛰라는 자부심, 비록 서툴지라도 부단히 배워나가겠다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저의 이 작은 걸음이 뒤따라올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고, 언젠가는 우리 학과 학생들의 실습처와 활동 무대가 더 넓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날이 너무 추워 넣어두었던 롱패딩을 다시 꺼내 입고 부스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5월에 접어들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과 밤 시간대인데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일정대로만 활동에 참여하지만, 매일 밤 현장을 사수하는 실무자들은 목에 냉팩을 차고 손선풍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까맣게 그을려 버린 실무자분들의 얼굴과 팔을 보며, 현장을 지키는 일의 숭고한 무게감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말실수를 하고, 민망함에 혼자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육체는 고되고 지칠지언정, 지금의 저는 ‘당장 잘해내는 사람’보다 ‘매 순간 부끄러움을 알고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깐요.

돌아보면 저의 시작은 참으로 소박하고 막연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더 너그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서 35년 만에 컴맹의 몸으로 방송대의 문을 두드렸던 전업주부였습니다.

제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싶어 시작했던 청소년 공부방, 교수님들의 뜨거운 가르침과 격려 속에서 이제는 거리에 서서 모든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눅 들고 무지했던 전업주부가 학과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예를 짊어진 당당한 대표가 되고, 마침내 위기 청소년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서포터즈원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길이 없는 곳에 먼저 걸어가 외로운 첫 발자국을 남겨야 하기에, 그리고 그 발자국이 뒤에 올 사랑하는 우리 청교과 후배들의 길바탕이 될 것을 믿기에, 저는 이 땀방울 맺힌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매서운 추위와 거친 바람 속에서도, 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엄격한 원칙으로 세밀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 선생

님을 보며, 처음에는 주눅이 들어 ‘내가 과연 이 귀한 일에 걸맞은 역량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깊은 고뇌와 함께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공적인 부분에서 냉철하게 지적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셨을 뿐, 사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으셨던 현장의 진정한 베테랑이셨습니다. 저를 현장의 당당한 전문가로 길러내기 위한 선생님만의 깊은 배려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제가 작성한 이 수기를 보시고, 한 문장 한 문장 주옥같은 피드백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셨을 때, 제 안의 서운함은 이내 울컥한 감동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냉철한 가르침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심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실무자분들의 이토록 숭고한 소명의식을 성찰 삼아, 저 또한 그 귀한 여정에 부끄럽지 않은 방송대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인으로서, 아이들의 상처를 온전히 보듬는 단단하고 따뜻한 활동가로 성장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해 봅니다.

줍자, 벌자, 먹자, 마라탕! - 경험으로 배우는 성장 이야기

청소년교육과 안*주 학우

2023년 여름, 청소년교육과 재학생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통해 공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문화의 집 관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무엇이든 직접 시도해 보려는 열정적인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공동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보았으며 2025년 청소년 지도자단을 모집 한다는 공고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며 문화의 집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본격적으로 공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지도자단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이 시작되었고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닌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 평가까지 경험해 보는 것이었다. 지도자단 내에서는 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대표 단장을 선출하였고 감사하게도 내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으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은 ‘아지트 럭키박스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었고 문화의 집 곳곳에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을 설치하고 미션에 성공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성공 스탬프를 찍어서 모든 스탬프를 완성했을 때 럭키박스에서 본인이 무작위 중 하나를 골라서 나온 선물(기관에서의 컴퓨터 30분 무료 사용권, 노래방 이용권, 달고나 세트 등)을 받는 것이었는데 기대했던 만큼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우리에게 ‘과연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나를 포함한 7명의 지도자단 선생님들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와 청소년들의 경제관념, 그리고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오리엔티어링 요소를 함께 넣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우리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단순히 환경교육이나 경제교육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활동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긴 회의 끝에 완성된 프로그램이 바로 「줍자, 벌자, 먹자, 마라탕!」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 그대로 이 활동은 직접 쓰레기를 줍고, 활동을 통해 가상화폐를 벌고, 직접 재료를 구매하여 마라탕을 만들어 먹는 체험형 활동이었다. 단순히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보상을 얻으며, 그 결과를 다시 자신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하였고,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오리엔티어링과 가상화폐 시스템을 결합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활동 장소를 사전답사 하며 안전 요소들을 점검했고, 마케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모집을 끝내고 드디어 프로그램 진행 당일은 초겨울로 접어드는 11월 중순이었기에 혹시

라도 활동하는 데 아이들이 추우면 어떻게 하나, 비라도 오면 어떻게 하나(물론 비 오는 것에 대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았다.),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비도 오지 않았고 한동안 추웠던 날씨도 이날 만큼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활동은 안전교육과 간단한 프로그램 설명, 그리고 환경교육을 진행하며 간단한 퀴즈와 연결하여 간식거리로 간식과 작은 보상을 나누어 주며 서로 어색했던 청소년들과 지도자단 선생님들, 그리고 서로 모르는 청소년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졌고 특히 환경교육에서 설명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 내용을 이후 외부 활동 미션 퀴즈와 연결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청소년들은 조별로 나뉘어 공동 청소년 문화의 집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환경 관련 퀴즈를 풀며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했다. 사실 사전답사를 했을 때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활동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찾아냈고, 그중에서도 담배꽂이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것을 보며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과 안전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는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단순한 봉사 활동이 아니라 ‘직접 보상을 얻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인식되었고, 가상화폐라는 요소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아이들은 더 많은 가상화폐를 얻기 위해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환경 퀴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워온 쓰레기를 직접 분리수거를 하며 서로 경쟁하듯 참여하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며, 나는 존 듀이가 말한 경험학습의 중요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듣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움직이고 경험하며 배우는 활동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움으로 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외부 활동을 마친 후에는 경제교육을 짧게 진행했으며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했다. 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조가 획득한 가상화폐를 활용해 미리 섭외 해둔 지역 마트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했는데 아이들은 자신이 번 화폐로 마라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획득한 가상화폐의 예산안에서 직접 고르고, 계산하고, 거래명세서도 스스로 작성해 보며 앞서 배운 경제교육을 통해 꼭 사야 하는 것들과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것 또한 이해하고 실제로 경제활동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다. 문화의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마라탕을 만들어 먹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했고,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에 없는 재료가 다른 조에 있는 것을 보고 물물교환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터득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프로그램 초반에 진행했던 환경교육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고 그것을 보며 경험을 통해 배우는 힘을 다시 한번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활동이 끝난 후 진행된 평가 시간에서 아이

들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퀴즈를 풀면서 배우는 게 재미있었다”, “직접 돈을 벌고 쓰는 경험이 신났다”는 소감을 해주었고 특히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는 말은 프로그램의 방향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아이는 “부모님 없이 혼자서 경제활동을 해보며 스스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뿌듯했다. 또한 쓰레기를 주우며 담배꽂초가 많아서 속상했지만 직접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서 보람되었다.”라고 했다면서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아이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활동했다,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고 싶고 플로깅과 퀴즈로 돈을 벌고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요리까지 하는 경험을 통해 알차고 재미있었다.”며 좋은 프로그램에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고, 또 다른 아이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놀랐고 처음에는 모르는 누나, 친구, 동생들과 어색했지만 유익하고 재미있었으며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단순한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청소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험을 통한 배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론으로만 접했던 경험학습의 개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효과 또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활동은 나에게 큰 변화를 주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나 또한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줍자, 벌자, 먹자, 마라탕」은 단순한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함께 만든 성장의 기록

청소년교육과 박*은 학우

2025년은 청소년들에게 ‘도전’의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전남 진도지역에서 방학 돌봄과 청소년 교육 활동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 견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 금으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다. 직접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을 계속 이어 가야 할지 고민도 많았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보다도 “누군가 끝까지 자신들을 믿어 주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보다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활동만큼은 계속 이어 가기로 결심했다. 재정 지원이 없이도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연히 청소년들이 지원가능한 공모가 눈에 들어왔다.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준비활동이 필요하며 도전 정신과 실패 회복성을 배우기에 충분한 좋은 기회였다!

이에 2025년 4월 부터 12월까지 바른가치연구소 앨리스에서 ‘도전하는 2025년’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교육 활동을 운영했다. 활동은 전라남도의 한 해 동안 공모사업을 찾아보고 도전하고 싶은 공모전을 1:1로 코칭하며 도와주는 내용이었다. 단순히 수상 실적을 목표로 하기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실패를 견디며 성장하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나는 지도자로서 아이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알려 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을 “한 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성취를 함께 나누는 기쁨, 떨어져도 도전 해 보는 경험, 그 과정에서 얻 는 무형의 “가치”를 안겨주고 싶었다. 공모전에 도전해 보자며 공모 내용을 소개했다. 공모전 기간에 주 1회 모여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다. 활동 초기의 아이들은 자신감이 부족했다.

“저는 글을 못 써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무서워요.”

“공모전은 잘하는 애들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다. 평가보다 격려를 먼저 했고, 결과보다 도전 자체를 칭찬 하였다. 드디어 아이들이 한 두명씩 용기

를 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도전은 ‘2025 전라남도 양성평등 손편지쓰기 공모전’이었다.

처음에 학생들은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어렵고 딱딱하게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론 중심 설명보다 일상 속 경험을 나누는 활동부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경험했던 역할 고정관념, 친구 사이에서 느꼈던 차별과 배려, 가정에서의 경험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게 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도 양성 평등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글쓰기 지도 과정에서는 단순히 문장을 고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돌아보고 표현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이들은 처음에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어떻게 글을 쓸지 개요를 잡았다. 자신의 경험이라 글쓰기가 훨씬 수월했다. 일단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니 글감이 풍성해졌다. 특히 서로의 글을 읽어 주고 응원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가정에서 누나와의 차별로 억울해서 울었던 경험을 했던 한 친구는 편지가 재밌고 감동적이라 부모님께도 보내드렸는데, 아이의 감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었다며 정말 좋아하였다. 초등학교때 남녀의 차별로 상처를 받은 학생은 중학생이 되어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으로 담임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지도자로서 나도 아이들이 학교내에서 겪는 양성차별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시를 쓰거나 표어를 만든 친구도 있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상(이*운), 전남교육감 대상(최*현), 전남교육감 최우 수상(김*현), 순천교육장상(박*환) 총 4명의 학생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멀리 순천까지 시상식을 가야 했음에도 수상 소식을 들은 한 학생은 “선생님, 저 대회에서 상 받아 본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단순한 수상의 의미를 넘어, 한 청소년의 마음속에 작은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처음 이 공모전을 학생들에게 추천한 이유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홍보 규모가 크지 않아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 고 예상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진도 지역 학생들이 작품을 준비해 제출한다면 누군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권유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성공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기대했는데,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두 번째 도전은 ‘전남글로벌인재’ 도전이었다.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원에서는 매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 영어 지필고사, 영어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여 프랑스와 영국 해외문화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나는 영어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에게 공고문을 보여 주며 도전을 권유했다.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며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영어 학원과 교육 환경이 좋은 순천·목포·광양 등 도시권 학생들이 유리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공고문을 읽어보니 선발은 지역별 성적순으로 뽑는 지역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 점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영어 원서책과 듣기 문제집을 사비로 구입해 제 공하며 시험준비를 격려했다. 또한 2차 필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AI를 활용해 영어면접 연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1명의 학생이 최종 선발되었고, 연수를 다녀온 뒤 학생은 프랑스 에펠탑 열쇠고리를 돌봄 친구들에게 선물로 건네주었다. 특히 성과발표회 보고서 첫 장이 그 학생의 소감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새로운 도전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성장해 가는 내용이 담겨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 나는 이를 통해 청소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도전은 시니어와 청소년이 참여한 ‘진도 보배섬 전국시낭송 대회’였다.

이 활동은 청소년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형 문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청소년 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다. 시낭송은 단순히 글을 읽는 활동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 문이다. 시니어들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의 하나로 격주 1회씩 보드게임 두뇌운동을 시작, 시 쓰기 강좌를 개설했다. 자신이 쓴 시를 외워 낭송했는데 모두 처음이라 부끄러워하셨다. 아이들은 희망자를 모집해 자작시를 쓰고 연습을 시켰다. 처음 무대 연습을 할 때 학생들은 목소리가 매우 작았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나는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완벽한 발표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시니어 어르신들의 시 낭송을 보며 학생들의 긴장감도 줄어들었다. 안타깝게 예선에서 탈락한 몇 명을 제외하고 6명이 본선에 올랐다.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던 학생들이 발표를 마친 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 결과 시니어 4명(신*현, 이*술, 박*로, 이*우), 학생 2명(이*승, 고*은)이 시낭송 대회에서 수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학생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점이었다. 발레를 좋아하고 배우고 있는 한 친구는 자신의 무용과 시낭송을 결합해 시낭송을 선보였다. 새로운 시도 였고 용기가 필요했지만 나는 자신이 잘 하는 것을 더 가치있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시낭송+발레를

권했고, 무대는 아름답게 빛났다. 이번 활동을 운영하며 나는 지역사회 청소년교육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 하게 되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알아보지 못해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 채 성장 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지지와 격려, 그리고 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이들은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을 지지해 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다. 지도자의 역할은 아이들을 대신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 주고 믿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활동 과정 속 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였다. 공모전에서 떨어졌지만 우리는 과정에서 느낀 가치가 있었고, 수상에 있어 모두가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공모전 준비를 넘어,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25년의 청소년 교육 활동은 단순한 수상 실적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양성평등 글쓰기 공모전 4인 수상, 전남글로벌인재 1인 선발, 시니어 & 주니어 시낭송 6인 수상이라는 결과 뒤에는 많은 연습과 실패, 그리고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이 있었다.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교육 은 결국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건강한 도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자 한다. 작은 지역의 작은 돌봄 공간에서도 아이들의 삶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결국 지역사회 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 아이들은 성취감과 함께 성공을 향한 실패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을 믿고 일어서는 힘을 배운 청소년들이 전라남도를 선도해 갈 것이라 믿는다.

지역사회 청소년교육 수기

청소년교육과 오*연 학우

2025년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나는 학교 수업과 더불어 내가 속한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 교육 또는 활동이 있을 때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하며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다. 단순히 학교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했고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 교육복지상담학과라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책임감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부모교육 및 역량 강화 과정의 일환으로 그림책 테라피(그림책놀이 심리지도사) 자격과정을 이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교육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활동을 하면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간 소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카운셀러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르봉사단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집단상담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며 상담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청소년수련관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운영 보조나 행사 진행 등을 경험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 하나의 과정이 운영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배우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 시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고, 청소년들의 반응을 가까이에서 보며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 다른 부분으로는 여러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선배님들의 이끌림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는 부스운영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공유학교 보조강사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보조강사 활동은 실제 초등학교 수업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보조하는 경험은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학생마다 성향과 반응이 다르기에 상황에 맞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예전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 자원봉사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오롯이 내 능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활동 정도로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학기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과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며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직접 소통해보면서 나 또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주변에서는 “현장 감각을 익혀야 한다”, “우리는 아직 경력

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봉사와 활동경험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스펙이 되고 경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에게 크게 와 닿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나하나씩 경험하고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 그분들이 해주신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나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 상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바쁜 학기였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경험을 쌓아가며 청소년 교육복지상담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싶다.

예방과 개입의 균형 속에서 만난 아이들

청소년교육과 김*미 학우

예방과 개입의 균형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건강한 성장 환경과 활동을 제공하는 ‘예방’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위기의 경계선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으로 손을 내미는 ‘개입’이다. 보편적인 예방 활동이 다수 청소년의 잠재적 위험을 낮춘다면, 별점 누적이나 학업중단 위기처럼 이미 어려움 속에 놓인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밀착된 직접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과, 상처받은 아이들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회복을 돕는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함께 요구된다. 예방의 그물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뛰며 활동을 이끌고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야말로 청소년 교육과 복지의 진짜 핵심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학생으로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

배움의 이유, 실천의 목적지

이전에 가족센터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예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최우선에 두었다. 하지만 현장 실무를 겪으면서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위기 가정과 그 가정 안에서 소외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점차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에 편입해 공부하면서, 나는 사회적 낙인과 소외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놓인 ‘경계선의 아이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학과에서 배운 청소년 발달 이론과 상담 기법, 복지 정책은 아이들의 행동과 감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단순히 이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실천력과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함께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나는 학교 규칙 위반으로 별점이 많이 누적된 학생들과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특성에 맞춘 활동을 진행하였다. 두 집단은 비슷하게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감정의 표현 방식과 관계 맺는 태도는 매우 달랐다.

서로 다른 차가움 - 집단별 첫 만남

각 그룹을 처음 만났을 때 프로그램실 분위기에는 서로 다른 결의 차가움이 감돌았다. 별점이 많은 학생들은 팔짱을 낀 채 반항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거나 시작

도 전부터 잠을 자는 학생이 있었고, 자퇴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무기력하고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이때 현장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집단의 특성을 빠르게 읽어내는 상담적 통찰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시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촉진자이자 동반자로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각 대상의 분위기에 맞춰 ‘감정 표시하기’, ‘감정 빙고’ 같은 활동을 진행했고, 청소년 상담사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안에서 쌓아온 짜증, 분노, 억울함, 무기력 같은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늘 혼나거나 지적만 받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 “나를 찾아서”

이후 진행한 ‘나를 찾아서’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붙어 있던 부정적인 꼬리표를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왔다.

나는 아이들에게 도전, 열정, 자유, 정직, 평화와 같은 가치 단어들을 제시하며 “나는 언제 가장 나다운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을 짓던 아이들도 활동지를 한 칸씩 채워가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요소를 접목해, 자신이 찾은 가치와 어울리는 모양을 결합하여 ‘나만의 도장’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이전 활동에서 고민하여 선택한 키워드를 활용해 인공지능 그림 생성 도구를 활용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 로고나 캐릭터를 완성했다.

위기 속의 반전

별점 누적 학생 대상 활동 중에는 한 차례 큰 위기도 있었다. 평소 학교와 어른들에 대한 반항심이 심했던 한 학생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칸에 손가락 욕을 그려서 그려온 것이다. 친구들은 웃기 시작했고 프로그램실 분위기는 금세 어수선했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단순히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기보다, 그 행동 이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 했다.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공격적인 표현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상처받은 자존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를 혼내는 대신 조용히 눈을 맞추며 물었다.

“이 도장을 찍으면 네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무슨 의미로 이 걸 만들었어?, 이 도장을 판매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잠시 침묵하던 아이는 자신이 늘 문제아 취급을 받아왔고,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욕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내 마음도 알아달라”는 서툰 외침이었다.

나는 아이의 거친 에너지를 ‘솔직함’과 ‘당당함’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로 다시 해석해

주었고, 욕설 대신 ‘당당하고 거침없는 나’를 상징하는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이의 표정은 그 순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맨날 지적만 당해서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달라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문제 행동으로만 보이는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첫 인정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배웠기 때문이다.

배움이 실천으로, 실천이 성장으로

이번 활동은 대학에서 배운 상담 이론과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시간이었다. 특히 집단별 특성에 맞춰 분반으로 운영했던 방식은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전문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청소년지도사로서는 건강한 소통과 성장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상담사로서는 위기 청소년들의 감정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처벌과 훈계 이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과 “너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지지였다.

돌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나 역시 예비 전문가로서 현장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낙인찍힌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건강한 성장을 돕는 청소년지도사이자 따뜻한 청소년상담사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고전이 청소년을 만났을 때

청소년교육과 김*정 학우

지역사회 도서관 겨울방학 특강으로 「고전으로 배우는 올바른 관계 맺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최근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험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청소년들이 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보드게임 「선물입니다」였다.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게임이 진행될수록 웃음이 많아졌고,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김유정의 고전소설 『동백꽃』을 함께 낭독하며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단순히 줄거리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듬원끼리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왜 점순이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주인공은 상대방의 마음을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모듬별로 역할극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할을 나누어 연습하는 과정도 경험하였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속에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같은 장면을 바라보더라도 모듬마다 다른 해석이 나왔고, 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 역시 배울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역브레인스토밍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관계를 망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 오해로 인해 관계가 멀어졌던 경험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과 실천해야 할 태도를 스스로 정리해 보았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점은 학생들이 단순히 고전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갔다.

이번 활동은 나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교육자로서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집단을 운영하는 기술,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현장에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청소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싶었다. 학과에서 배우는 청소년 발달, 상담, 집단활동, 프로그램개발 등의 이론은 현장에서 경험했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고자, 2026년에는 [경기 e:음 공유학교]를 통해 6편의 단편 고전을 읽고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고전으로 묻고, 나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12차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